

## 목차

20231213182839.....	1
20231213182901.....	2

## 2023 에벤에셀 서신

사랑하는 동역자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열심히 달려온 2023 년도의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보며 올 한해 함께하시고 순간순간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2005년 파송 받고 선교지로 나간 이후 처음으로 일년의 안식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타지키스탄에서 사역했고 타직에서는 엔지오를 운영했기에 일년의 시간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에 저희 부부는 타지키스탄에, 그리고 첫째와 둘째는 각각 한국과 카자흐스탄에 떨어져 지내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탈진상태로 안식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영,육,정서적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안식년 동안에 한국사이버외대 한국어학과 4학년을 공부할 계획이어서 얼마 전 2학기까지 잘 마쳤습니다. 타지키스탄이 작년에 정식으로 한국대사관 승격되면서 관광비자의 문도 열리고 한국과의 교류가 이전보다 활발해졌습니다. 타직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현지인들과 만남에 접착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방선교사는 3월에 선교지에서 불편했던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자궁근종이 크게 자라서 수술을 했고 덕분에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없었으면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 쉬지 않았을테니까요~~

이후에 장인어른의 허리 디스크 수술 병간호를 하면서 자녀 된 도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선교지에 있으며 부모님의 건강을 돌봐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이 기회에 섬기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과 여행도 하고 자주 찾아 뵈면서 함께한 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걱정도 됩니다. 이 땅에서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늘 생각하게 됩니다.

각자 흠어졌던 아이들과도 함께 보내게 된 한 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첫째 건무는 지난 9월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잘 마쳤고 내년 3학년으로 복학합니다. 부산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숙소를 위해 기도했는데 청년임대주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둘째 건민이는 올해 한동대 입학하여 1학년을 잘 마쳤습니다. 내년 2월에 군입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도했고 건민이가 원하는 시기인 내년 2월5일에 군입대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타직으로 복귀하는 시기를 내년 3월초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건민이가 훈련소 퇴소하는 것을 보고 갈 수 있게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아이들과 떨어져 지냈지만 시간 되는데로 함께 여행하며 아이들 지내는 곳으로 찾아가 만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좋은 시간을 갖았습니다. 여섯 살, 세 살에 선교지에 나갔던 아이들이 어느덧 청년이 되어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견스럽기도 하면서 힘들어하는 시기

에 떨어져있어서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모든걸 이해해주는 아이들이 고맙기도 했구요~~

일년의 안식년을 보내며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비롯하여 선교기관과 각종 훈련, 무릎기도로 만나게 된 분들 그리고 후원교회 방문을 통해 만나게 된 많은 주님의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차기 사역에 기도로 함께 할 것임에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타직을 방문하셨던 JDS분들과 지속적으로 소식을 공유하며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연합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선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매번 잠시 방문했던 일정에 다양한 만남을 갖지 못했었는데 일년의 시간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많은 만남속에서 사역나눔,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저희를 회복하게 해주셨고 다시 선교지로 나아갈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지냈던 올해의 안식년은 너무 행복한 시간들, 감사한 시간들로 가득했네요. 예배의 회복과 비전의 말씀을 주시고 동역자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내년 3월 출국 예정인데 거주비자 작업은 1월부터 진행됩니다. 일단 한국에서 3개월 비자 받고 타직 가서 연장되는 과정이 순적하고 출국일 안에 잘 나올 수 있도록~
2. 종합건강검진을 했는데 몇 가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잘 치료되어 건강하고 성령충만 하여서 기쁨으로 사역하도록~
3. 첫째 건무가 3학년으로 복학하는데 3년간의 공백시간을 지혜롭게 잘 공부하고 교수님, 교우관계가 원활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4. 둘째 건민이가 2월5일 입대하는데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좋은 보직으로 자대배치 받아서 원활한 관계가운데 군생활하고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 43:18~19)

앞으로 붙잡고 나아갈 10년 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님과 함께 타직 땅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타지키스탄 에벤에셀 선교사 가정 올림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00093-84837 차주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